


# “우후죽순 출점에”... ‘편의점’ 점주, 年1860만원 번다



**의약품 8810만원 ‘1위’...안경·문구업종 상위**  
**가맹점당 종사자 평균 3.7명...치킨점 2.5명 뿐**

가맹점주가 손에 쥐는 이익이 가장 적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편의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우후죽순 출점으로 경쟁이 심해진 탓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매출액은 2억7840만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9%였다.

실제 벌어들인 순이익을 뜻하는 영업이익은 가맹점당 2740만원이다.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세전 3948만원)의 69%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종별로 가맹점주가 쥐는 돈은 최대 7000만원 차이를 보였다.

의약품이 88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안경(4890만원), 문구점(3360만원), 일식·서양식(3270만원), 한식전문점(3210만원), 제빵·제과(2910만원), 피자·햄버거(25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던 편의점은 12개 업종 중 가장 낮은 1860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본사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에다 동일 상권 내 우후죽순 생겨나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라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맹점 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치킨전문점은 2360만원을 벌었고, 전국 1만개가 넘는 주(酒)점도 1곳당 2350만원을 가져갔을 뿐이다.

분식·김밥점(2270만원)과 커피전문점(2110만원)도 2000만원을 겨우 넘겼다.

이명호 경제총조사과장은 “가맹점당 사업실적을 봤을 때 프랜차이즈 산업은 성장 추세”라면서도 “편의점의 경우 지출비용 만큼 매출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다. 출점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매출이 떨어지고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도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맹점당 종사자는 3.7명이었다. 업종별로는 일식·서양식(5.8명), 피자·햄버거(5.2명), 커피전문점(4.2명), 한식전문점(4.1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인 창업이 많은 치킨전문점(2.5명)과 주점(2.6명)은 일하는 사람이 적었다.

## 침수車, 무사고 차량 둔갑?... “중고차 살 땐 ‘카히스토리’ 확인”

**보험개발원, 24일부터 모든 침수 사고 무료 조회 가능**

보험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침수 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임계 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사고 무료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는 2009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기반으로 중고차의 사고내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침수차 무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침수 피해가 큰 경우다. 올해부터는 정부 규정이 바뀌어서 침수 전손 차량은 모두 폐차된다.

침수 분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사고로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다.

희망지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www.carhistory.or.kr)에 들어가 좌측 하단 ‘무료침수 사고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뉴시스



## 유럽풍 식기로 식탁 꾸미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에서는 폴란드, 독일, 프랑스의 유려미만의 감성이 담긴 주방식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월드 키친 페어’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총 3억원 물량을 전개하며 프라이팬, 압력솥, 스텐냄비세트, 식기세트, 칼, 도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60%할인 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6월 광주·전남 어음부도금액 14억1000만원 감소**  
**한국은행 발표...부도금액 66억9000만원**

이름은 전국 어음부도율 0.28%와 지방 평균 0.3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6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자료에 따르면 어음부도율은 0.28%로 전월 0.40%에 비해 0.1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전남지역 부도금액은 66억9000만원으로 전월 81억1000만원보다 14억1000만원이 감소했다.

업종별 부도금액은 제조업이 9억2000만원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9억7000만원, 서비스업은 14억1000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17억8000만원이 감소했으나, 전남은 3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신규 부도업체는 광주·전남지역 각각 1곳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곳이다.

최남규 기자

## 기아차, 주행성능 등 상품성 개선한 ‘더 뉴 쏘렌토’ 출시

국산 중형 SUV 중 최초 8단 자동변속기 장착...등급 최고연비 13.4km/ℓ



개선한 ‘한층 더 강화된 급이 다른 SUV’라는 게 기아차 측 설명이다.

더 뉴 쏘렌토는 국산 중형 SUV 최초로 8단 자동변속기(2.2 디젤/2.0T 가솔린 모델)를 탑재해 가속 및 NVH(소음·진동 방지) 성능을 향상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한다.

연비는 13.4km/ℓ(2.2 디젤 모델/18인치 타이어 기준)로 등급 최고 수준이다.

운전자 주행습관에 따라 콤포트·스포츠·에코 모드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2.2 디젤/2.0T 가솔린 모델)’를 주행모드 통합제어 시스템에 추가해 최적의 주행모드를 제공한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산 중형 SUV 최초로 주행차로 이탈시 조향을 보조하는 차로이탈방지 보조시스템(LKA)을 탑재했다.

아울러 운전자의 피로나 부주의에 대비해 휴식을 권하는 경고음과 메시지를 송출하는 운전자 주의 경고(DAW)와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 따라 헤드램프가 회전해 야간 주행 시 시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DBL)’ 등 첨단 안전장치를 추가했다.

기아차는 자체 튜닝 브랜드인 ‘튜온’을 통해 블랙·LED·성능 등 3가지 패키지를 선보인다.

뉴시스

#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이로서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